

**** 박물관 관람공간구성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ological Analysis of Museum Layouts

조은실* / Cho, Eun-Sil
 유재엽** / Yoo, Jae-Yeup
 최윤경*** / Choi, Yoon-Kyung

Abstract

The study intends to systematically arrange and classify the museum layouts in terms of their structure of exhibition space. The exhibition space, here, means the whole area where visitors are allowed to move and visit in museums. Through this, I tri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compar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hibition space layout, and then grope the standard in case of establishing museum. The first criteria is based on the point of view that the typical museum experience is made in the exhibition space. Accordingly, the exhibition space can b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room type' consisting mostly of individual rooms as in classical museums, and the other is 'open plan type' consisting free standing walls as in Miesian free plan. The second criteria is dependent on the way how visitors move about in exhibition spaces. In other words, museum layouts can be categorized in terms of mutual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 spaces including exhibition spaces and corridor spaces designated for the purpose of moving. Consequently, the layouts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such as 'free plan', 'linear type', 'room to room', 'room & corridor' and 'composition type'. The third criteria is about the overall structure of museum layouts including such elements as whether it contains a certain type of central major space or not and whether and how the exhibition spaces are connected to it. By applying these classificatory criteria, the study analyzed and classified 90 sample of museum layouts in order to understand clearly and succinctl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contained in them.

키워드 : 박물관, 공간구성, 관람공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근대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외·국내 박물관¹⁾을 대상으로 박물관들이 가지는 공간구성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관람공간구성이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관람공간구성의 특성과 경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며, 차후 박물관 계획시 박물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하는 방향과 일치할 수 있는 관람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에 있어서 박물관의 역할이 수집·보존 중심기능에서 전시와 교육을 통해 정보와 지식 전달에 관심이 증대되어가고 있고, 사회·문화적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²⁾

따라서 오늘날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미는 '보물 창고'라는 기념비적 건물이 아니라 작품과 관람객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의 장'으로서, 관람객과 관람객간

* 정희원, 동부산대학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과 강사
 ** 정희원, 부산경상대학 산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전공 전임강사
 *** 정희원,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건축학박사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과정(98-0602-04-01-3)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1)본 논문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전시 내용에 따라 용어가 이원화되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문화적 의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8, 9권 10호, p.86.

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서 그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의 정의에서 벗어나 확대된 개념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박물관 개념의 확대는 박물관 공간해석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시관람을 위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이동에 소요되는 이동공간, 중심공간을 포함하는 '관람공간' 측면에서 박물관 공간구성을 살피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박물관의 공간분석의 방법으로 평면구성 방식에 중점을 두어 연구에 접근한다. 따라서 공간분석의 요소로는 평면구성 이외 물리적 변수인 공간의 크기나 조명, 색상 등 중요한 요소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면구성 이외 요소는 제외한다.

공간의 연구대상 범주로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현대적 개념이 강화되면서 박물관은 전시, 교육, 연구, 수장의 기능을 지지하는 강연홀이나, 비디오실, 휴게공간과 같이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람공간'에 그 초점을 둔 것으로서 관람공간 범주에 포함하는 전시공간, 이동공간,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외의 요소인 휴게공간, 강연홀, 수장고등은 제외한다.

사례대상의 범주는 분석 비중이 높은 각국의 주요 박물관의 평면 유형을 제시한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 I, II, III」³⁾를 기준으로 국외 사례(43)개, 국내 사례 (47)개로 총(90)개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2. 관람공간의 정의 및 유형분류 기준제시

2.1. 관람공간의 정의

관람공간이란 박물관내에서 관람동선과 관계되는 단위공간과 이를 통일시켜 전체로 관련시키는 공간개념이며, 동시에 관람객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따르게 되는 공간으로 연속지각이 가능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람공간은 단순히 전시 관람을 위한 전시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공간으로의 이동공간, 다른 관람객과의 만남을 제공하는 중심공간등 관람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단위영역별로 관람공간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시공간; 전시물과 관람객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 박물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의 하나이며, 전시물의 지적, 미적 가치의 공간화를 통하여 관람자에게 지적, 미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이동공간; 코리다(corridor)처럼 공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

시공간에서 복도와 같이 다음 전시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③ 중심공간; 관람객과 관람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로서 순수한 전시관람보다는 집중적인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다. 즉, 로툰다(rotunda), 주요홀(major hall)등으로서 전시관람에 대한 시각적·공간적 접근을 유도하고, 휴식이나 대기, 이동방향 등의 중간역할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요컨대 관람공간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전시공간과 관계를 의미하며 적극적인 의미로는 관람객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전시관람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박물관 전체공간을 의미한다.

2.2. 관람공간의 기준제시 및 유형분류

관람공간 유형분류의 기준은 관람객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관람공간'을 전시공간, 전시공간과 이동공간 사이의 상호관계, 전체공간등 3단계의 유형화 과정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1) 1차적 기준

박물관의 전형적인 경험이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초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전시공간을 ①실(Room) 단위로 구분하는 개실형(Room type; RO형)과 ②그렇지 않은 개방형(Open plan; OP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2) 2차적 기준

관람객이 한 전시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공간으로 연속적 이동을 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유형으로 전시공간과 이동공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응하는 배치, 구성 등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된 관람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공간 상호관계를 분석하면 개방형은 ①자유평면형(Free Plan; FP형) ②선형(Linear Type; LT형)으로 분류되며, 개실형은 ③연속적 개실형(Room to Room; RR형) ④선택적 개실형(Rooms & Corridor; RC형) ⑤복합형(Composition; COM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3차적 기준

1·2차적 기준이 전시공간과 이동공간에 의해서 형성된 관람공간구성이란 3차적 기준은 박물관 전체공간과 관련된 공간구조라 할 수 있다. 즉, 3차적 기준은 전시공간은 물론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물리적·공간적 요소에까지 시각을 전환시킴으로서 박물관 공간을 폭 넓게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하에서 특정한 내용의 전시를 전제하기보다는 휴식이나 대기, 이동방향인식 등 일종의 상징적인 중간의 역할을 하는 중심공간—이러한 중심공간의 성격과 의미를 감안할 때 이를 박물관 공간구성에 있어서 중심성(centrality)이라고 해석하여도 좋을 것이다.—을 수용하게 되었다.

앞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례 유형을 분류하면 <표 1>⁴⁾과 같이 나타나며, <표 2>와 같이 각 유형별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4) 사례 대상은 90개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으나 지면의 한계로 평면으로 삽입되지 않은 것을 <표 3> <표 4>에서 표시하였다.

3) 서상우,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 I, II, III, 기문당, 1995.
물론 이 책에 나온 박물관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방법에 따른 중요 박물관의 평면을 가장 많이 기재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사례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C O P P 형	NC + FP 형							
	OC + FP 형							
	NC + LTT 형							
R P P 형	C + LTT 형							
	NC + RR 형							
	C + RR 형							
R O C 형	NC + RC 형							
	C + RC 형							
	NC + COM 형							
C + COM 형	C + COM 형							

<표 2> 3차적 기준에 따른 관람공간구성 유형특성

관람공간구성유형			특 성	
1차적	2차적 기준	3차적 기준		
개방형	자유평면형 (Free Plan; FP형)	중심성부정+자유평면형 (Non Centrality+Free Plan ; NC+FP형)		전형적인 틀을 부정하며, 내부가 빈 중립적인 공간으로 시각적, 심리적으로 폐쇄하거나 구속되지 않는 개방적이고 율동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중심성수용+자유평면형 (Centrality+Free Plan ; C+FP형)		전시공간이 free plan 형식을 취하고 중심성을 수용·확보하는 '중심성 수용+자유평면형'의 박물관들은 순수한 전시관람보다는 휴식이나 대기등 집합적인 경험을 나누는 장소로서, 또는 공간적·시각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형 (Linear Type; LT형)	중심성부정+선형 (Non Centrality+Linear Type ; NC+LT형)		전시공간과 과정적 공간, 진입공간등 각 부분의 공간이 물리적 분할 없이 open된 형태로 모든 공간은 선형으로 연속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시공간 부분들의 관계는 하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그 자체의 개체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각 부분들은 전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도록 통합되어 있다
		중심성수용+선형 (Centrality+Linear Type ; C+LT형)		극도로 제한된 순환방식, 동일한 경험의 강요, 단일선상의 강제적동선등 '중심성 부정+선형'과 일치한 면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중심성이 도입되어 시각적 통합을 통해 집단적, 문화적 경험을 보다 강조하는 공간구성이다.
개실형	연속적 개실형 (Room to Room; RR형)	중심성부정+연속적개실형 (Non Centrality+Room&Room ; NC+RR형)		전시실과 전시실이 직접연결 또는 전시실간에 복도와 같은 매개공간을 두어 두 공간을 연결하는 유형으로 <실> 과 <실> 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실> 의 접근이 일원적이며, 관람객은 <실> 을 따라 단계적·연속적인 관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적 동선에서 오는 지루함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유형이다.
		중심성수용+연속적개실형 (Centrality+Room&Room ; C+RR형)		중심공간을 독립된 전시공간이 연속적 관계를 이루며 에워싸는 형식이다. 따라서 각각의 독립된 전시실들은 개구부를 통해 주변 전시실과 연결되어 관람객의 일원적 순환을 유도한다. 그러나 중심공간이 관람객에게 위치적응을 위한 감각을 추대시켜 일원적 순환에서 오는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해소시켜주는 유형이다.
	선택적 개실형 (Rooms & Corridor; RC형)	중심성부정+선택적개실형 (Non Centrality+Rooms&Corridor ; NC+RC형)		복도나 그와 유사한 공간이 독립된 <실> 과 평행하게 인접되어 있는 관람객은 복도를 지나면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는 <실> 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서 관람의 선택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중심성수용+선택적개실형 (Centrality+Rooms&Corridor ; C+RC형)		중심공간과 독립된 개실로 구성된 유형으로서 전시실로의 선택적 접근이 가능하며, 중심성의 기능이 유지되는 유형이다.
복합형 (Composition; COM형)	중심성부정+복합형 (Non Centrality+Composition ; NC+COM형)		어디에도 중심공간은 없으며, 중복된 <실> 의 구성, 연속적개실+선택적개실복합형을 동시에 내포하는 유형으로 두 가지 이상의 관람적 특성을 갖는 형식이다. 또한 중복된 <실> 구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전시실에서 이웃하고 있는 전시실들이 모두 조금씩 보임으로써 이웃 전시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함으로써 관람객이 앞으로 움직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중심성수용+복합형 (Centrality+Composition ; C+COM형)		중앙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개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심성 부정+복합형'과 차이를 보이는 '중심성 수용+복합형'은 개방공간 주변에 <실> 들이 두가지 이상의 유형적 특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중심성 부정+복합형'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복합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3. 국내·외 사례의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3.1. 유형분석의 틀 및 분류

2장에서 제시한 유형 기준을 토대로 관람공간구성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우선 4가지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국외별

사례 박물관에 있어서 국외·국내의 기준에 의해서 관람공간구성 유형을 분류.

(2) 규모별

박물관의 규모는 크게 ①소형; 연면적 2,000㎡미만 ②중형; 연면적 2,000㎡이상-6,000㎡미만 ③대형; 연면적 6,000㎡이상-20,000㎡

미만 ④초대형; 연면적 20,000㎡이상 4가지로 구분5).

(3) 시대별

시대별 기준은 외국 박물관 변천을 기준으로 삼아 근대의 발달 시기부터 최근의 과정까지 시간축으로써 ①근대의 시기; 박물관의 원형이 되는 Schinkel의 공간으로부터 모더니즘의 박물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18세기의 근대 박물관의 태동부터 1959년 이전 시기

②후기모더니즘의 시기; 다채로운 전시체계와 전문화와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1960년대 이후부터 1979년 이전까지 해당된다. ③다원의 시기;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확대가 강조되는 시기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이상 세 시기로 나누어 분류6)함.

<표 3> 국내 박물관의 관람공간 유형분석

MUSEUM 명	관람공간구성 유형별										규모별				시대별		전시대상별						
	OP형					RO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 대 형	근 대 의 시 기	후 기 모 데 르 니 즘 의 시 기	다 원 의 시 기	자 연 계	이 공 계	역 사 계	미 술 계		
	FP형		LT형		RR형		RC형		COM형														
	NC + FP형	C + FP형	NC + LT형	C + LT형	NC + RR형	C + RR형	NC + RC형	C + RC형	NC + COM형	C + COM형													
국립민속박물관								○							○							○	
국립경주박물관								○							○								○
국립광주박물관								○							○								○
국립현대미술관																							○
독립기념관		○													○								○
국립중앙과학관		○													○								○
국립진주박물관								○							○								○
국립청주박물관								○							○								○
국립부여박물관															○								○
국립대구박물관															○								○
국립제주박물관															○								○
국립전주박물관															○								○
부산시립박물관								○							○								○
은양민속박물관								○							○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								○
광주민속박물관															○								○
인천시립박물관															○								○
경기도립박물관															○								○
광주시립미술관															○								○
신안해저유물전시관								○							○								○
서울시립박물관															○								○
부산시립미술관															○								○
영산호농업박물관															○								○
육군박물관															○								○
전쟁기념관															○								○
신림박물관								○							○								○
서울대박물관		○													○								○
한양대학교박물관															○								○
단국대서주선기념민속박물관								○							○								○
원광대학교박물관															○								○
이화여자대학박물관															○								○
호암미술관															○								○
한국문예진흥원	○														○								○
한가람미술관	○														○								○
서울서예원															○								○
선재박물관															○								○
기당박물관															○								○
화폐박물관															○								○
신천지미술관															○								○
토탈아외미술관															○								○
토탈컨템포러리미술관															○								○
제주영화미술관															○								○
환기미술관															○								○
해강도자미술관															○								○
목야박물관															○								○
청도농기구박물관	○														○								○

5)박석수, 미술관 건축의 규모계획을 위한 면적배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4, pp.17-19.

6)서상우, 1995, 전계서

(4) 전시대상별

전시대상은 ①이공계; 이공학 박물관, 전문박물관 ②자연계; 자연사 박물관 ③역사계; 역사관, 민속학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④미술계; 미술관(Art Museum)으로 분류하고, 앞서 제시된 분석의 틀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해 보면<표 1><표 2>와 같다.

<표 4> 국외 박물관 관람공간 유형분석

MUSEUM 명	관람공간구성 유형별										규모별				시대별			전시대상별				
	OP형					RO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 대 형	근 대 의 시 기	후 기 모 더 니 즘 의 시 기	다 원 의 시 기	자 연 계	이 공 계	역 사 계	미 술 계	
	FP형		LT형		RR형		RC형		COM형													
	NC +	C +	NC +	C +	NC +	C +	NC +	C +	NC +	C +												
FP형	FP형	LT형	LT형	RR형	RR형	RC형	RC형	COM형	COM형													
Museum des 20. Jahrhunderts in Wien		○													○						○	
Centre Georges Pompidou	○														○						○	
Le Musee d'Orsay										○			○			○					○	
L'Historal de la Grande Guerre a Peronne												○			○					○		
Das Aites Museum						○								○							○	
Die Neue Nationalgalerie, Berlin	○											○			○						○	
Bauhaus - Archives/ Museum of Design	○													○							○	
Städtisches Museum										○			○			○					○	
Neue Staatsgalere, Stuttgart						○							○			○					○	
Das Deutsche Postmuseum										○			○			○			○			
Museum Fur Moderne Kunst Frankfurt am Main										○			○			○					○	
Erweiterung Städtische Galerie im Städtischen Kunstinstitut	○											○				○					○	
Kunstmuseum, Bonn											○					○					○	
國立西洋美術館						○							○		○						○	
福岡市美術館						○							○		○						○	
大阪國立民族學博物館		○											○		○					○		
佐倉國立歷史民俗博物館										○			○			○				○		
名古屋市美術館						○							○			○					○	
東京國立近代美術館						○							○			○					○	
横浜市立美術館										○			○			○					○	
Museo Nacional de Antropolgia										○			○		○					○		
Museo de Arte Contemporance Internacioa Ruffin Tamayo						○						○				○					○	
Kunsthil, Rotterdam		○											○								○	
Joan Miro Fundacio										○					○						○	
The National Museum of Roman Art, Merida	○															○					○	
臺北市立美術											○					○					○	
Clore Gallery at the Tate Gallery										○			○			○					○	
Sainsbury Wing, The Nationa Gallery	○												○			○					○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			○	○			○				○	
Guggenheim Museum				○									○								○	
Cullinan Hall/ Brown Pavilion	○												○								○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												○		○						○	
Oakland Museum	○												○		○						○	
The Museum of Modern Art										○			○	○							○	
National Gallery of Art, East Building										○			○		○						○	
Hirshhorn Museum & Sculptre Garden										○			○		○						○	
National Air & Space Museum										○			○	○					○		○	
Kimbell Art Museum												○			○						○	
The Yale Center for British Art															○						○	
High Musseum													○			○					○	
The Menil Collection & Museum		○								○			○			○					○	
Seattle Art Museum, Downtown		○											○			○					○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 Museum		○									○			○		○				○	○	

7)정한수, 뮤지엄 전시부문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 논문, 1995, p.59.

3.2. 국내·외의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국외·국내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관람공간구성 유형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외 박물관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관람을 제공하는 '자유 평면형'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 박물관은 관람의 자유로움보다는 박물관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 배열·전시된 틀 속에서

선택적·순환적 관람을 유도하는 '선택적 개실형'과 '연속적 개실형'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국외·내별 박물관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관람공간구성 유형			국외·국내별	
1차	2차	3차적 기준	국 외	국 내
개방형	개방형(자유)	중심성 부정 자유평면형	20.93% (9)	6.38% (5)
		중심성 수용 자유평면형	13.95% (6)	8.51% (4)
	개실형	중심성 부정 선택		2.13% (1)
		중심성 수용 선택		2.33% (1)
개실형	개실형(개방)	중심성 부정		19.15% (9)
		중심성 수용	9.30% (4)	6.36% (3)
		연속적 개실형	6.38% (3)	6.36% (3)
	개실형(선택)	중심성 부정 선택적 개실형	2.33% (1)	17.02% (8)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23.25% (10)	21.28% (10)
		중심성 부정 복합형	4.65% (2)	4.26% (2)
	개실형(복합)	중심성 부정 복합형		4.26% (2)
		중심성 수용 복합형	16.28% (7)	14.89% (7)
합 계			43	47

3.3. 규모에 따른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①소형의 경우에는 국외 사례는 선정 사례 중 소형규모의 박물관이 없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중심성 부정+연속적 개실형'이 일반화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중형의 규모에서는 국외의 경우 관람의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자유평면형'이 일반화된 유형으로 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심성 수용'의 선택적 개실형과 연속적 개실형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며 선택적·연속적 관람을 유도하고, 중심성을 통하여 선택적·연속적 관람시 발생하는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③대형 규모에 있어서 국외 박물관에서는 연속적 개실형, 선택적 개실형 그리고 자유평면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국내 박물관에서는 선택적 개실형이 가장 일반화된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국외 대형 박물관은 다양한 관람공간 유형만큼 다양한 관람행태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대형 박물관들은 관람객의 의지에 의한 선택적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④초대형의 경우 국외의 경우는 '중심성 수용+선택적 개실형' '중심성 수용 복합형'이 일반화된 경향으로 나타나며, 국내의 경우에도 '중심성 수용+복합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외 초대형 박물관이 중심성을 도입하여 규모의 극대화화인 관람시 방향유지, 위치적응, 휴식 등 중심공간의 기능을 제공하며, 선택권을 부여하여 넓은 규모에서 관람객 자신들의 필요 목적에 따른 관람의 융통성을 제공하고자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규모별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관람공간구성 유형			규모별				
1차	2차	3차적 기준	소형(2,000㎡이하)	중형(2,000㎡이상 4,000㎡이하)	대형(4,000㎡이상 20,000㎡이하)	초대형(20,000㎡이상)	
개방형	자유평면형	중심성 부정 자유평면형	11.11% (1)	33.32% (2)	7.14% (1)	20.00% (3)	20.00% (1)
		중심성 수용 자유평면형	11.11% (1)	16.67% (1)	13.33% (2)	10.53% (2)	10.00% (1)
	선택형	중심성 부정 선택	11.11% (1)				
		중심성 수용 선택					
개실형	연속적개실형	중심성 부정 연속적 개실형	33.34% (3)	14.29% (2)	25.66% (4)	15.79% (3)	20.00% (1)
		중심성 수용 연속적 개실형		16.67% (1)	21.43% (3)	6.67% (1)	
		중심성 부정 선택적 개실형	22.22% (2)	7.14% (1)	6.67% (1)	26.31% (5)	
	복합형	중심성 부정 복합형	11.11% (1)	28.57% (4)	25.00% (3)	26.31% (5)	50.00% (5)
		중심성 수용 복합형	16.67% (1)	14.29% (2)	6.67% (1)	5.27% (1)	40.00% (3)
		중심성 수용 복합형	16.67% (1)	14.29% (2)	15.79% (3)	40.00% (5)	40.00% (3)
합 계			9	14	19	10	5

3.4. 시대에 따른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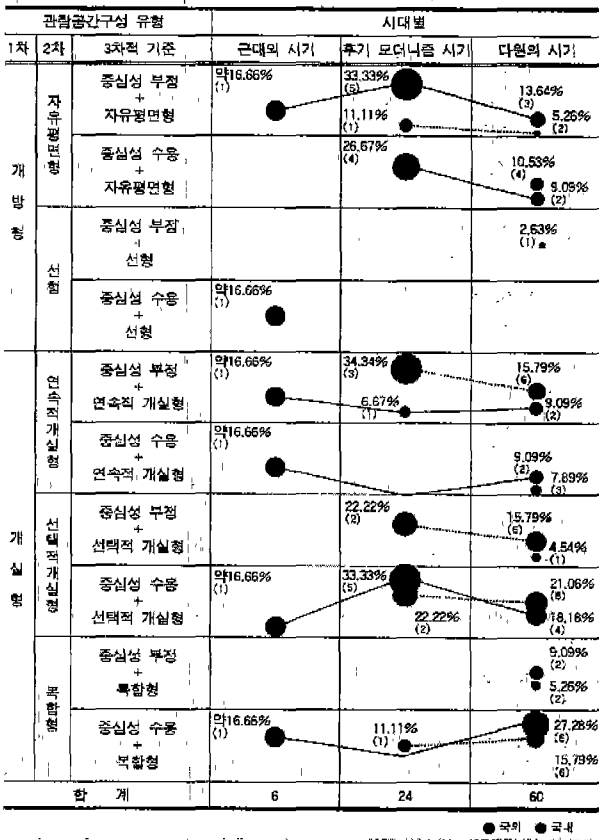
시대적 기준에 의해 근대의 시기, 후기 모더니즘의 시기, 다윈의 시기로 구분하여 국외·국내 박물관을 살펴보면, ①근대의 시기에는 국외·국내 모두 특정한 일반형을 찾을 수 없었다.

②후기 모더니즘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외의 경우는 '자유평면형'과 '선택적 개실형'이 부각되었고, 박물관의 태동기를 맞은 국내에서는 관람공간구성에서 가장 전형적인 구조라 할 수 있는 '중심성 부정+연속적 개실형'이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유도하고자 하는 국내 박물관의 의도에서 나온 경향으로 유추된다.

③다윈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면서 박물관에 대한 의미와 기능도 변화되었다. 그에 따른 국외·국내 박물관의 관람공간 유형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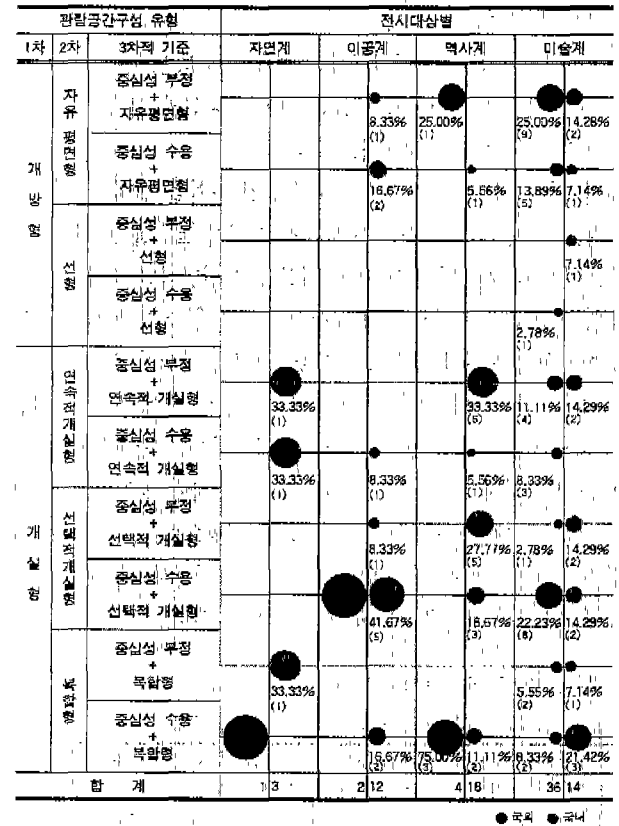
즉, 다윈의 시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중심성 부정+복합형'과 같은 유형이 나타났으며, 특정 유형으로 편중되어 있던 경향이 고른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시대별 박물관의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술계의 특성상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라 보여진다.

<표 8> 전시대상별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3.5. 전시대상에 따른 관람공간구성 유형분석

①자연계 박물관에서는 국외·국내 총 사례 90개중 4개로서 일반화된 유형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계 전시자료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자연사적 흐름 속에서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연속적 흐름을 유도하는 '연속적 개실형'과 연속적 개실형을 내재하고 있는 '복합형'이 관람공간구성의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②이동계 박물관에서는 국외·국내 모두 '중심성 수용+선택적 개실형'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 곳을 찾는 관람객이 일반 대중이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특정 목적에 의해 방문하는 경향을 고려한 것으로 전시공간으로의 선택적 접근이 용이하며, 다른 관람객과의 만남을 제공하는 박물관의 의도로 유추해석 할 수 있다.

③역사계 박물관에 있어서는 국외 박물관은 '중심성 수용+복합형'이 적은 수의 사례로 일반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심성 부정+연속적 개실형'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시물을 배치·전시하며, 관람객의 흐름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유도하려는 맥락에서 보여지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④미술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경향을 인식할 수 있다. 미술계가 전시 대상인 경우는 단계적·순서적인 관람이 요구되지 않는 특성상 '자유평면형'과 '선택적 개실형'이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전시공간으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이동공간, 중심공간을 포함하는 '관람공간' 측면에서 박물관 공간구성을 살피고,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외·국내 박물관이 다양한 관람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준의 틀 속에서 모든 박물관은 분류될 수 있다. 즉, 모든 박물관은 전시공간만을 기준으로 삼는 1차적 기준에서는 개방형과 개실형으로 분류되며, 전시공간과 이동공간 사이의 상호관계에 따라 형성된 2차적 기준에서는 자유평면형, 선형, 연속적 개실형, 선택적 개실형, 복합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전체공간과 관련된 3차적 기준에서는 중심성 부정/수용+자유평면형, 중심성 부정/수용+선형, 중심성 부정/수용+연속적 개실형, 중심성 부정/수용+선택적 개실형, 중심성 부정/수용+복합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국외와 국내의 관람공간구성의 유형을 분석하면 국외 박물관은 선택과 자유로운 관람을 제공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며, 국내 박물관은 일정한 배열과 전시된 틀 속에서 선택적·순환적 관람을 유도하는 관람공간구성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셋째, 규모에 따른 관람공간구성 유형을 분석하면, 소규모 공간인 경우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심성 부정'의 유형이 파악되며, 중형이상의 규모에서는 중심공간을 수용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넷째, 시대에 따른 관람공간구성 유형을 살펴보면, 후기모더니즘 이전에는 한 유형으로 편중되어 있던 경향이 다윈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유형의 고른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전시대상에 따른 박물관 관람공간 유형을 살펴보면, 자연계 박물관과 이공계 박물관은 전시물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연속적 개실형'과 '선택적 개실형'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분석되었고, 이공계 박물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특정 목적에 의해 방문하는 경향을 고려한 것으로 전시공간으로의 선택적 접근이 용이하며, 다른 관람객과의 만남을 제공하는 '중심성 수용+선택적 개실형'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미술계 박물관에서는 단계적·순서적인 관람이 요구되지 않는 특성상 '중심성 부정+자유 평면형'과 '중심성 수용+선택적 개실형'의 유형이 일반화된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박물관 계획시 지침이 될 수 있는 관람공간구성 유형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박물관 관람공간구성 계획의 방향제시

구분	자연계	이공계	역사계	미술계
소형	중심성 부정 +연속적 개실형	중심성 부정 +선택적 개실형	중심성 부정 +연속적 개실형	중심성 부정 +자유 평면형
중형	중심성 수용 +연속적 개실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중심성 수용 +연속적 개실형	중심성 부정 +자유 평면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대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중심성 부정 +자유 평면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초대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복합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복합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복합형	중심성 수용 +선택적 개실형 /복합형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있는 한계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성을 느낀다. 본 연구가 채택한 분석의 대상은 특정 자료에 기재된 박물관에 국한하여 그 평면구성을 살펴본데 그쳤다. 따라서 국외의 경우 좀 더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박물관 관람공간구성을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이러한 측면을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상우,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 기문당, 1995.
2. 이난영, 박물관 입문, 삼화출판사, 1972.
3. Daniele Giraudy, Henry Bouilhet, 김혜경 역,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화산문화, 1996

4. Heinrich Klotz, 독일의 현대 박물관 건축, 강병국 역, 도서출판 국제, 1986
5. Josep Montaner & Josep Oliveras, 이경훈 역, 현대박물관, 태림문화사 1995.
6. Manfred Lehmbruck, 박물관 건축과 환경, 국립 중앙박물관, 1995.
7. 강철구, 박물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5.
8. 김낙동, 현대적 박물관의 전시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5.
9. 박석수, 미술관 건축의 규모계획을 위한 면적 배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4
10. 신혜정, 현대뮤지엄 건축의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1.
11. 이정호, Museum의 메이저스페이스에 관한 건축계획적인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6.
12. 전정철, 미술관 전시공간 구성요소의 관계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7.
13. 전향란, 관람동선을 고려한 미술관의 공간구성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6.
14. 정한수, 뮤지엄 전시부문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1995.
15. 정해출, 현대 건축공간의 체험적 움직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 논문, 1997.
16. 조종일, Museum건축에서 대공간의 형태구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 논문, 1988.
17. 김용승, An Approach To Evaluating Exhibition Spaces In Art Galleries, Ohio State University, 박사학위논문, 1994.
18. 최윤경, The Spatial Structure of Exploration And Encounter In Museum Layout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학위논문, 1991.

<접수 : 2000. 5. 2>